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혜암 스님(1)

시자,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혜암,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다

시자, 그러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혜암, 아야! 아야!

덕송총림 수석사 초대방장을 지낸 혜암(惠菴, 1886~1985) 스님이 편찬... 시자 나월(羅月)이 스님께 여쭙었다. "스님,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다."



고 마지막 가르침을 묻는 제자들에게 "무상 무공 무비공(無相無空無非空).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대답으로 임종계를 대신했다. 즉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無相), 그렇다고 허망한 것도 아니고(無空) 허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無非空)는 자기 확신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면목은 육신에서 벗어난 것

'심신탈락' 경지 온 몸으로 표현

스님께서는 "아야! 아야!" 하셨다. 1911년 혜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혜암 스님 사진은 1913년 성월 선사 밑에서 선(禪)을 공부하고 화두를 간택받았다. 그 뒤 만공·혜월·용성 선사를 차례로 모시고 6년 동안 용평정진하여 도를 깨닫고 오도송을 지었다. "어묵동정 한마디 글귀를 누가 감히 손대겠인가. 내게 동정(動靜)을 여의고 한마디 이르러면, 곧 깨진 그릇은 서로 맞추지 못한다고 하리라(語默動靜句箇中誰敢着問我動靜離即破器相從)." 그 뒤 묘향산 상원사 주지와 정선정암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1929년 만공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구름과 산은 다름없으나 또한 큰 가풍도 없다. 글자 없는 도장을 그대 혜암에게 주노라"는 전법계를 받았다. 스님은 그 뒤 제방선원에서 보인(保任)하는 한편, 수좌들을 지도하다가 1956년 수덕사 조실로 추대되어 덕송산에 머무르면서 30년 동안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또, 1984년에는 100세의 나이로 덕송총림 초대 방장(方丈)으로 추대되었다. 1985년 삼월 삼짱날 세수 101세, 법랍 89세로 입적한 스님은 열반을 앞두고

승계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대답은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다"는 것. 본래의 청정자성(淸淨自性)은 육근(六根)·육경(六境)·육식(六識)으로 이뤄진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아프고 싶어도 앓을 수 없다는 법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아프고 싶어도 앓지 않는 것일까? "아야! 아야!" 하고 육신은 소리를 내지만, 본래면목은 아픈 적이 없다. 그렇다고 아픈 몸과 마음이 본래면목과 둘이라고 여겨져도 안 된다. 한 물건도 없는 '옛 거울(古鏡)'에 비친 그림자가 형상 없는 거울과 '물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기(不二不一)' 때 문이다. 혜암 스님은 "아야! 아야!" 하면서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심신탈락(身心脫落)의 경지를 온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원(道元) 선사가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좌선이다. 좌선 함으로써 오욕(五欲)을 떠나고 오온(五蘊)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한 법문이 바로 이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무엇이 전불후불(前佛後佛)인가?" "플 앞의 은행나무 두 그루를 보는 것인니다."

"무엇이 전불후불인가?" "악(囂)!"

10월 26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에 소재한 법천사 운문선원(선원장 일수) 법당. 운문선원장 일수 스님이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오후 1시에 여는 <달마혈맥론(達摩血脈論) 강좌의 첫 법석에서 '전불후불'의 뜻을 20년 참선한 수좌의 안목(眼目)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菩提達磨)의 가르침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한 <달마혈맥론>에 대한 강좌가 강사나 선원장스님에 의해 열린다는 점에서 이날 강좌는 관심을 모았다.

전통사 선원장 동명, 수국사 주지 도진, 중앙종회의원 의현,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등 스님들과 법천사 신도들, 수강생 등 100여명은 모처럼 선원에서 열린 달마어록 강좌에 이목을 집중했다.

일제식에서 동명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행에 입각해 말하는 이는 드물다"면서 "운문선원 대종의 혈맥론 공부가 1600년 한국불교사의 법등을 새롭게 밝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 대표인 대원각 보살은 인사말을 통해 "20여 년 전부터 달마 스님 법문을 듣고 싶었던 차에 선원장스님께서 혈맥론을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강료법문으로 생활 속의 모든 번뇌와 망상, 스트레스가 사라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창법가에 이은 설법이 시작되자, 일수 스님은 강의 첫머리에 양 무제(梁武帝)가 달마 대사가 질문한 문답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무엇이 불법의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인가(聖諦第一義)?"

"만법은 텅 빈 것.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廓然無聖)."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不識)." 양 무제는 '진리란 범(凡)과 성(聖)을 초월한 것이며, 본래면목은 말과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란 달마 대사의 종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제는 지공 화상으로 부터 달마 대사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란 설명을 듣고 뒤늦게 그를 찾았지만, 대사는 이미 양자강을 건너 위(魏)나라로 떠난 뒤였다.

이와 같이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면 무제와 같은 장면이나 다름없다. 일수 스님은 텅 빈 마음으로 달마 대사의 법문에 귀 기울

"걸림 없는 참나 깨달아 자비로 살자"

법천사 일수 스님 '달마혈맥론' 첫 강의 현장



법천사 운문선원은 일수 스님(아래)의 <달마혈맥론> 강좌를 듣기 위해 찾아온 승·재가 불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일수 스님은 원문을 운율이 맞춰 읽은 후, 신도들이 다시 따라 읽게 하였다. 그리고는 한 문단씩 읽고 직역과 해설을 붙여가며 강의를 이어갔다. "삼계가 혼돈 속에서 일어났으니,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 부처님과 뒤 부처님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했을 뿐 '문자는 세우지 않았음(不立文字)'이라."

이 대목에서 스님은 '불립문자'에 대해, "무조건 문자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떨어지지 않을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네가 내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며, 내가 네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일수 스님은 이 장면이 달마 스님의 핵심 법문이라고 말했다. 달마 대사가 "근기에

응해 증생(衆生)을 제정하며 눈썹을 치켜치고 눈을 깜박여 수족(手足)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靈覺之性)이다'고 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달마 스님 당시에는 순수해서 이 한 마디에 깨달았지만, 이제는 알음알이가 치성해져 심지(心地)법문을 듣고도 믿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철 스님께서 소참법문으로 '성제 제일의' 법문을 하셨을 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양 무제나 다름없었지요. 20여년 이상 참선을 하고 보니 이제 말귀가 좀 들리지만, 법문을 알아차리려면 평소 애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고법총림 백양사 방장 서울 대종사의 뜻을 이어 '참사람(無位真人)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수 스님은 '참사람 서원'을 설명하며, 첫 강의를 마쳤다.

"무상(無相) 상에 걸리지 않고, 무주(無住) 머무는 바 없이의 참나를 깨달아 자비생활을 합시다.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 인류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역사를 창조합시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祖師西來意)을 대중이 함께 탁마한 이번 달마혈맥론 강의는 스승의 지도를 받지 못해 선법(禪法)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채, 무작정 앉기만 하는 다수 시민선법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선사들은 먼저, 정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고 행주좌와 어묵 동정에 걸림 없는 참선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좌선에만 집착하거나, 반대로 좌선을 무시하는 편견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혈맥론 강의가 끝나 뒤, 일수 스님이 다시 1시간의 좌선으로 이날 공부를 회향한 것도 '정혜를 함께 닦는(定慧雙修)' 치우침 없는 공부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일수 스님은 '혈맥론'에 이어 해제(解題)마다 '관심문', '이입사행문'도 강의할 예정이며, 매월 첫째·셋째 주일 휴야 참선정진도 계속 진행한다. (02)745-6939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빠따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빠따 센터. 전화주시는 본가는 인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빠따 마스터 권혁오

수행개시판. 영화미소 선수련회-강화 국제연등선원은 11월 6일~12월 18일, 매주 화 오후 1~4시, 영화미소 선수련회 37실을 모집한다. 기초교리, 경전·선언론 강의, 좌선 등으로 진행 (011)9554-3568. 아나빠나띠 집중 수행-강연회 법사는 11월 22~26일 4박5일간 조차원 지정사에서 부처님 호출법인 아나빠나띠(Anapana sati) 집중수행운을 갖는다. (041)868-3119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고무신코 만행화. 발마춤 제작. 방한용탈신, 방한용부츠, 조각무명, 사계절단화. 최고의 선물. 지압갈상. Naver.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1-846-9091, 대구: 연광사 053)426-7300,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화성: 불교서원 062)228-2870,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대구: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1-846-9091,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경북(예천) 불타불교점 054)655-2525